



## 『심일조』

더글러스 르블랑 지음 | 윤희석 옮김 | MP

◎ 이상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본서는 MP 영성의 보화 시리즈 중 한 권으로 기획·출간된 것이다. 이 시리즈가 목표하는 것은 “성경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성 훈련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적용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저자인 더글러스 르블랑 (Douglas LeBlanc)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성공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작가가 저자이다.

서평자가 속한 교단의 원로목사 중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몇 가지 후회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중의 한 가지가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복 받을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헌금 설교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심일조에 관한 책이 나왔다고 하면 ‘아! 누가 또 교인들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그럴듯한 논리와 사례로 가득한 책을 하나 썼구나!’라고 반응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더글러스 르블랑의 『심일조 (Tithing)』를 받아두고 처음으로 가진 필자의 생각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본서는 IVP 영성의 보화 시리즈 중 한 권으로 기획·출간된 것이다. 이 시리즈가 목표하는 것은 “성경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성 훈련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적용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저자인 더글러스 르블랑 (Douglas LeBlanc)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성공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작가가 저자이다.

이 책은 일단 상투적인 헌금 설교나 성공론에 거부감을 가진 평신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서문에서 영성의 보화 시리즈의 편집인인 필리스 터클은 저자 르블랑의 “명쾌한 사고, 한결같고 탄탄한 기독교 신앙,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탁월한 솜씨에 늘 감탄하곤” 했기 때문에 고대의 일곱 가지 영성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심일조에 대해서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서를 읽으면서 터클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서는 심일조론을 기술한 것도, 심일조 설교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심일조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12명의 다양한 기독교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쉽고, 간결하며, 진솔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이며, 흥미진진한 특성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이들을 인터뷰하는라고 일곱 개 주의 여남은 도시를 다녀야만 했다. 저자는 자신의 취재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심일조(또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후하신 분이라는 더 넓은 시각)가 자신의 영적인 삶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들려주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어서 자신도 심일조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평신도인 저자는 “옹켜주고 있던 돈을 놓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돈도 오지 하느냐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우리는—어쩌면 자신도 모르게—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만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문을 맺는다(23쪽). 저자는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것과 달리 심일조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서의 성격이 이처럼 인터뷰 내용을 간결하게 추려서 소개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책처럼 장별로 요약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본서를 들고 그저 몇 시간 읽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 맛보기라도 잠시 해볼까 한다. 몇 개의 예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1장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TVP)의 저자 로널드 사이더 부부의 이야기이다. 사이더는 ‘누진 심일조’ 개념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거듭 겸소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부자들이 겸손하게 살아야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찰스 버크의 말을 우리에 소개한 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누진 심일조를 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은 부담이나 역자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여정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고백한다. 사이더는 미국이 너무나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돈을 쓰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2장에서 르블랑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뉴올리언스에서 시작하고 있는 제리 크레이머 부부이다. 제리가 시무하는 교회는 카트리나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지만, 지역주민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금 일어섰다. 제리는 아내 스테이시 덕분에 심일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테이시는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면 심일조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생적으로 드리기를, 무엇을 먹든지 막막해도 일단 드리기를 원하셔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제리는 심일조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불질관을 배우고, 상상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가계부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열매이지 목표 자체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3장에서 소개되는 프레베리키 매튜스 그린 부부는 결혼 후 34년 동안 심일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매일 10 퍼센트나 그 이상을 드려왔다고 밝힌다. 이 부부가 그렇게도 철저하게 심일조 생활을 지속해 온 이유는 “심일조는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물질계 전반에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또한 동방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배운 대로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

저자가 5장에서 소개하는 랜디 알론은 낙태 반대 운동 때문에 목회자를 잃은 사람이지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인세 전액을 기독교 사역 기관들에 헌금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처음으로 심일조를 교회에 드리는 순간에 주인의식이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심일조는 좋은 출발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율법적으로 심일조에 빠지는 것은 반대한다. 그는 심일조를 헌금의 보조 비켜라고 부른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고후 8장과 9장의 정신을 진실로 깨닫고 그대로 삶에 실천한다면 심일조는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말라기 3장에서 심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은혜 의 삶, 자원하여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 삶이 얼마나 재밌고 그분이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84쪽).



르블랑이 6장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제럴드 재누어리 목사이다. 제럴드는 “심일조가 자신의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였으며 심일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고갱이 튀었다.”라고 고백한다. 그는 조부모에게서 심일조 생활을 배웠다. 젊었을 때 고생한 이후로 모든 소유에 대해 심일조와 5퍼센트의 추가 헌금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분명한 물질관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가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케빈 존스는 사명 지향적 투자를 목표하는 곳 캐피탈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투자하고 있는 에버그린 여관은 경쟁 시

에서 온 청년들을 고용하여 훈련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남은 생애를 “권력과 돈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본 시장, 사업 등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바치고자” 한다(109쪽).

르블랑은 8장에서 자신의 동료 기자인 마이크 켈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많은 종교적 권력을 거쳐서 안식교에 정착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흥만한 것의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돌려 드린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리고 그가 심일조를 긍정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의 더 큰 몸, 개인적 민족이 아닌 더 큰 목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118쪽). 마크는 심일조란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더 깊은 소통을 거꾸는 길이자 또한 그 소통을 표현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120쪽).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드윈 베이킨 2세 신부는 자유주의적인 성공회의 신부로 교인들에게 심일조를 권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돈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훨씬 많은 에너지가 발휘”되며 헌금하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의욕과 활기가 생긴다.”라고 말한다(126쪽). 그리고 그는 좀 더 심원한 이유를 밝힌다. “우리가 후회 드리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부산물로 얻지만, 가장 값이 떨어지는 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131쪽) “심일조는 우리가 미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심일조는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134쪽) 그리고 심일조를 드릴 때 그는 “돈을 움켜쥐려 애써야 하고 염려하던 데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교의 목소리도 잊지 않는다. “심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큰일을 행하지 못하게 그분을 막는 것입니다.”(132쪽). 저번 관계상 네 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맛보기는 생략하려고 한다.

별로 두껍지도 않은 르블랑의 저서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나온 증기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어떤 경우는 서평자가 그러했듯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심일조는 구약의 율법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실천하되 바른 정신으로 실천해야 하는 영성의 보화가 된다는 점을 재인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헌금이나 심일조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시하거나 경죄하고 싶은 투자들은 혹시라도 인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회개는 지상적 회개와 마음의 회개뿐 아니라 온 지각의 회개도 따라와야 한다는 점을 애써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이상영 계명대학교와 홍익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에 영스테덤 자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M.A., Ph.D.)를 취득했다. 대신대학교 전임강사와 대구 신학대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신학대학원 조차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론(부흥과개혁사)』 있다.